**2018년 9월 학기 (9.11-10.23)**

**원서 완독: Alain de Botton의 <불안 Status Anxiety>**

강사: 한은경 (hanek@snu.ac.kr)

강의 시간: 화 17:-00-19:00 (총 4회, 8시간)

강의 일정: 9/11, 9/18, 10/2, 10/16

**수업 수강에 대한 안내사항**

- 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함께 완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원서 완독을 돕기 위해 매주 해당 범위의 어휘를 정리해서 이메일로 미리 보내드립니다.

- 읽으면서 어려웠던 부분, 질문, 코멘트 등을 자유롭게 수업 전날까지 강사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수업은 원서의 중요한 문장과 표현 확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질문과 설명 위주입니다.

- 원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영작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어적 표현을 습득하는데 집중합니다.

**원서 선정에 대해서**

<방학에 원서 한 권: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마친 후 두 번째 원서 완독으로 어떠한 책을 선정할까 고민하면서 여러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인류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핀 인문학 교양서인 <사피엔스>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원서를 선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랭 드 보통은 문장력으로 기사 작위와 에세이 상을 받을 정도로 우아하고 세련된 문장을 구사하는 작가입니다. 그렇다고 과히 문학적이거나 까다롭지도 않습니다. 그의 글은 쉽고 명료하고 직관과 통찰력, 독창성이 뛰어나고 유머 감각도 담겨있다는 평을 받습니다. 따라서 알랭 드 보통의 글은 번역서보다 원서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알랭 드 보통의 수많은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마음에 와 닿을 책을 골랐습니다. 국내에는 <불안>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Status Anxiety>는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불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진로, 취업, 성적 등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원서의 수준은 중급부터 고급 수준의 독자들,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도전적으로 흥미롭게 읽을만한 수준입니다. “모두의 완독”을 목표로 함께 노력합시다.

**교재 -** *Status Anxiety*  (Alain de Botton, Vintage Books, 2005)

**강의계획 (subject to change)**

|  |  |
| --- | --- |
| **Day 1 (9/11)** | 1-1. Lovelessness ~ 1-2. Expectation |
| **Day 2 (9/18)** | 1-3. Meritocracy ~ 1-4. Snobbery ~ 1-5. Dependence |
| **Day 3 (10/2)** | 2-1. Philosophy ~ 2-2. Art |
| **Day 4 (10/16)** | 2-3. Politics ~ 2-4. Religion ~ 2-5. Bohemia |